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

의안 번호	1809
----------	------

2017년 4월 21일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의 파면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에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수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력, 인권침해, 인종차별, 성희롱 등을 일삼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는 교원 직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이며,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비위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임. 또한, 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같이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는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폭언 “빨갱이 새끼야, 모자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 새끼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일삼으며, 매 수업마다 대다수의 학생을 체벌(“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 “대나무 죽비로 어깨를 칩, 죽비가 없을 경우 주먹으로 머리를 칩”)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성 발언,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등 불쾌한 직접적 신체접촉, 상담 중에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질문하는 등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하였음.

- 이로 인해 2017년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특별 인권교육 수강권고’라는 결과를 통지하였음. 이 같은 인권위 결정문은 김신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라는 감경처분을 내린 것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립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실명공개경고’에 그치는 등 인권위 결정문과 다르게 감경 처분을 내렸음. 또한 시립대 측은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전·현 교무처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회유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의도가 나타났으며,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교수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안식년)되어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음.
- 또한, 이 외에도 김신도 교수는 학생논문포질 관련해서도 2012년도와 2015년도 윤리위원회에 2차례 회부된 적이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서면 권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같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처분을 한 시립대의 처사는 문제가 있으며,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는 더 이상 전임교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수라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신한 점 등 정당치 못한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물어 파면건의안을 제출함.

3.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수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력, 인권침해, 인종차별, 성희롱 등을 일삼는 등 교원 직무에 부적격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에 대해 파면을 건의한다.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는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폭언 “빨갱이 새끼야, 모자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 새끼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일삼으며, 매 수업마다 대다수의 학생을 체벌(“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 “대나무 죽비로 어깨를 칩, 죽비가 없을 경우 주먹으로 머리를 칩”)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는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성 발언,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등 불쾌한 직접적 신체접촉, 상담 중에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질문하는 등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특별 인권교육 수강권고'라는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 같은 인권위 결정문은 김신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라는 감경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립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실명공개경고'에 그치는 등 인권위 결정문과 다르게 감경 처분을 내렸으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전·현 교무처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회유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의도가 나타났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교수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안식년)되어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외에도 김신도 교수는 학생논문표절 관련해서도 2012년도와 2015년도 윤리위원회에 2차례 회부된 적이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서면 권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같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처분을 한 시립대의 처사는 문제가 있으며,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김신도는 더 이상 전임교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수라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신한 점 등 정당치 못한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물어 파면건의안을 제출한다.

2017.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